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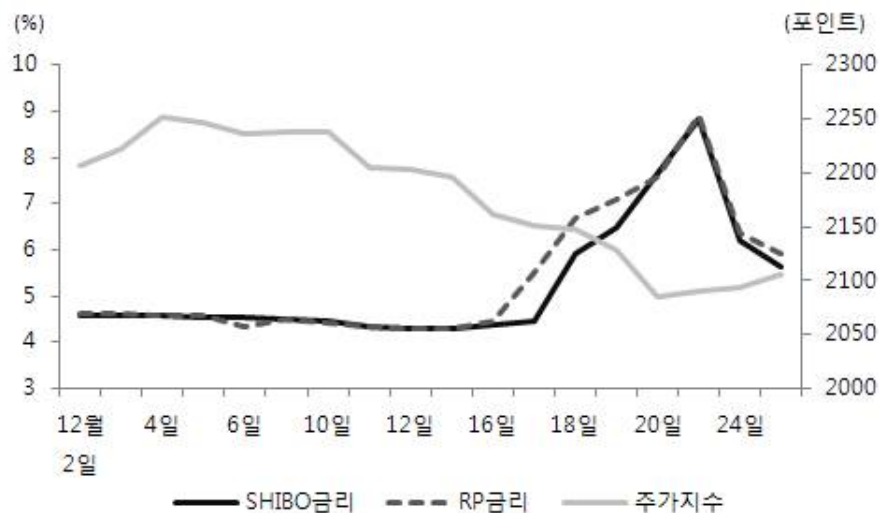
중국의 단기금리 급등 배경 및 시사점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최근 중국 단기금리가 급등하면서 12월 20일 중국 인민은행은 3,000억 위안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였다고 발표함.

- 중국의 대표적인 단기금리인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(RP)금리와 상하이 은행 간 금리(SHIBOR)는 12월 초까지 4%대에 머물렀으나 각각 16일과 17일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3일 9%에 육박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함.
-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7일 미만의 환매조건부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유동성조작(SLO)을 통해 3,000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발표한 후 25일 현재 단기금리는 5% 대까지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12월 초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함.
- 한편 상하이 지수는 시중 단기금리 상승으로 신용경색 우려가 제기되면서 2,100선을 하회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임.

〈그림 1〉 중국 단기금리와 주가지수 추이



자료: SHIBOR, Bloomberg.

- 중국 단기금리 급등은 기업들의 결제 수요, 예대율 충족을 위한 은행권 자금 확보 등 계절적 요인의 영향도 있으나 최근 인민은행이 유동성 축소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임.
 - 연말에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결제 수요 증가와 은행들의 최소 예대비율 기준 충족을 위한 자금 확보 등 상승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나 이번 단기금리 급등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임.
 - 2013년 들어 인민은행은 은행권의 고위험 부실대출과 그림자 금융 확대를 억제하기 위하여 유동성 축소에 나서고 있으며, 12월 들어서는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함.
 - 또한 인민은행은 중국 재정부의 연말자금 투입을 예상하였으나 중국정부가 정부지출 축소를 공표함에 따라 유동성의 급격한 축소가 나타났다고 판단됨.

- 중국에서는 2013년 6월 이후 반복적으로 단기금리가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, 신용경색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되지만 대출금리 인상으로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.
 - 2013년 6월 인민은행은 은행들의 과도한 대출을 경고하면서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 회수에 나섰다 이후 단기금리가 급등하면서 신용경색 우려가 제기된 바 있으며, 10월에도 인민은행의 유동성 축소로 단기금리가 크게 상승한 바 있음.
 - 단기금리의 급등이 인민은행의 인위적인 유동성 축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임.
 - 그러나 대출금리가 이미 높은 수준이고 단기금리의 상승이 대출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.

- 인민은행은 은행권의 과도한 대출과 그림자 금융 억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신용 축소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은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.
 - 중국 금융시장의 발달로 인민은행의 유동성 관리 정책이 단기금리 급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, 단기 자금시장 불확실성이 실물경제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글로벌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.

(Financial Times 등)